

여성흡연의 현황 및 시사점

Women's smoking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인 특징에서의 차이 뿐 만 아니라, 건강행위의 및 사회적인 적응의 차이 등 많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흡연행동 및 그 원인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성의 흡연에 대한 접근은 여성의 특성을 인정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행동 중 우선적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여성의 흡연요인을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여성흡연은 아직 그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여성흡연율은 3.15~5.7% 2006년 2.8~3.9%로 미국의 18.5%(2004년), 호주의 16.3%(2004년)에 비하여 낮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세를 보이며, 아직 미성년자인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여, 향후 전반적인 여성흡연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여성의 흡연율의 변화 및 여성흡연행동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여성 흡연 현황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조사에 따라 2005년 3.15~5.7%, 2006년 2.8~3.9%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흡연의 추이를 보면, 젊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향후 여성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시사한다. 1992년과 2007년의 연령계급별 흡연율은 50~59세는 6.0%에서 4.6%, 60세 이상은 12.1%에서 4.6%와 6.6%로 감소세를 보였고, 30~39세는 3.9%에서 4.4%, 40~49세는 3.7%에서 4.5%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세군은 3.8%에서 7.6%로 2배의 증가를 보였고, 곧 성인이 될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2년 2.4%에서 2007년 13.0%로 나타나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층의 흡연율 증가세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표 1. 성인여성의 흡연율 추이

(단위: %)

	1992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¹⁾	5.1	-	-	3.1	6.0	3.5	4.0	3.1	2.8
한국 ²⁾	3.4	5.2	5.2	4.0	-	-	-	5.7	-
한국 ³⁾	6.1	6.0				3.8			3.9
미국	22.8 (1990)	22.6	-	21.0	-	-	18.5	-	-
호주	24.7 (1990)	20.3	-	18.0 (2000)	-	-	16.3	-	-
캐나다	-	22.7	-	18.0 (2000)	-	-	-	16.0 (2005)	17.0 (2007)
스웨덴	25.0 (1990)	26.0 (1994)	-	20.0 (1999)	-	-	16.0	-	-

주: 1)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결과; 20세 이상 조사시점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결과임.
 2)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19세 이상 여성 대상, 흡연자정의: 1992년 조사일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1995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1998년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2001년 및 2005년 평생 100개비 이상 흡연자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조사결과; 20세 이상 조사시점 흡연자
 4) 외국 성인연령: 미국: 18세 이상, 호주: 14세 이상, 캐나다: 15세 이상, 스웨덴: 25~64세.
 자료: 서미경 외, 여성 흡연 및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표 2-13 재인용

표 2.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 추이

(단위: %)

	1992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성인여자 전체	5.1	5.2	5.2	4.0	6.0	3.5	4.8	5.8	5.3
70이상	12.1	-	-	18.0	-	-	-	9.3	6.6
60~69		-	-	6.2	-	-	-	3.5	4.6
50~59	6.0	-	-	4.0	-	-	-	6.8	4.6
40~49	3.7	-	-	3.7	-	-	-	5.7	4.5
30~39	3.9	-	-	3.6	-	-	-	4.5	4.4
20~29	3.8	-	-	4.6 (19~29)	-	-	-	6.1 (19~29)	7.6
여고	2.4	4.7	8.1	7.5	7.3	6.8	7.5	13.5	13.0
여중	2.8	1.4	2.6	3.2	2.0	0.9	1.7	6.3	5.9

주: 성인여자흡연자정의: 1992년 조사일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1995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1998년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2001년, 2005년, 2007년은 평생100개비 이상 흡연자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자료: 1992~2001, 2005의 흡연율은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해당연도, 2007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 조사결과 2002~2004년은 금연운동협의회·갤럽, 『금연실태조사』 해당연도, 서미경 외, 여성 흡연 및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표 2-1 재구성

뚜렷한 흡연율의 증가세를 보이는 젊은층의 흡연율을 전국단위의 조사결과와의 연구논문에서의 결과를 참조하면 흡연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 전후의 여성의 흡연율은 1990년 7.3%, 1995년 7.4%, 2000년 8.5~16.3%, 2001년 38.3%, 2003년 34.3%, 2004년 23.9%로 점차 흡연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흡연율 조사에서 “한 달 이내 흡연”인 경우 2000년 15.0%와 16.3%로 조사되어 2000년대의 20대

여성흡연율은 16%정도로 추정된다. 2004년에는 매일흡연자가 14.0%, 가끔 흡연 7.9%로 흡연자 21.9%이다. “한 달 이내 흡연”을 흡연율로 추정하게 되면 14.0~21.9%의 사이로 추정된다. 중간정도의 값인 18%가 20대 여성(대학생과 직장인)의 흡연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전국단위의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29세의 흡연율 3.8% (1992년), 4.6%(2001년), 6.1%(2005년)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

표 3. 20대 성인 여성 흡연율 추이

기준연도	흡연율	정의	대상	논문출처
1990. 5~6	7.3%	-	산업체 근로자	최순옥 등, 한국역학회지 1991;13(2):146~158
-	19.8%	-	여대생 (1~4학년)	송미령,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5
1992	3.8%	조사일 현재 흡연자	20~29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1992
1995. 5~6.	현재흡연자 7.4%, (과거흡연자 20.6%)	현재 흡연	여대생	곽정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5;12(2):120-138
2000. 11.	8.5%	-	여대생	박인혜 등, 간호과학논집 2001;6(1):175-188
2000. 8~10	15.0%	한달 내 흡연	여대생, 직장인, 미혼여성	김계하,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2001
2000. 10 2001.	16.3%	최근 한달 동안 흡연	직장 미혼여성 (평균 연령: 23.9세)	정승은, 최신의학 2002;45(7):25-34
2001. 3~4.	38.3%	실제 흡연하는 행동	여대생	홍경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2001	4.6%	평생 100개비 이상 흡연자	19~29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3. 4~5	34.3%	-	20대여성	김애숙,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3
2004. 5.	21.9% (매일흡연: 14.0%, 가끔흡연:7.9%, 과거흡연:18.1%)	매일, 가끔 흡연	여대생	박선애 등, 계명간호과학 2005;9(1):25-38
2005	6.1%	평생 100개비 이상 흡연자	19~29세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자료: 서미경 외, 여성흡연 및 음주의 원인과 정책대안, 표 3-4 재구성

상의 선정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 통계조사는 20대의 대표성 있는 집단을 선정하였고, 논문에서는 여대생, 미혼직장인 등 특정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방법에서 국민건강영양 조사와 국민건강통계조사 보다 일반논문의 조사방식이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을 더 취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특정여성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을 수도 있으며, 또한 비밀이 보장될 경우 더 흡연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비 흡연 성인 여성의 특성

증가되는 여성의 흡연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 여성 중 평생비흡연자와 현재 비흡연자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 중 평생 비흡연자의 특성

평생비흡연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5%(3,929명)로 남자 15%(696명) 보다 많았다. 여성의 평생 비흡연의 특성은 남성의 특성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인구 사회적 변수 중 결혼 여부가 중요변수로 나타나는데, 남성과 반대로 결혼을 한 집단이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평생 비흡연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사회계층변수가 여성의 경우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교육수준, 월 가구 소득에 따른 평생 비흡

연자의 차이가 확인하였다. 저소득층, 저학력자, 비결혼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평생 비흡연자가 적었다. 이는 남성은 흡연이 보편화되어 인구 사회적 변수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데 비하여, 여성은 흡연자가 인구 사회적으로 특수한 계층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의 흡연환경에서는 남성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정 금연 환경에서는 가족 중 흡연자 없는 경우, 집에서 일부흡연을 허용하거나 절대금연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평생 비흡연자인 경우가, 5~3배의 차이가 있었다. 직장 금연 환경은 남성의 경우 직장의 작업장에서의 흡연허용여부가 평생 비흡연에 영향을 미친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의 직장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여부가 평생 비흡연에 영향을 미쳤다. 직장공공장소가 절대금연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평생 비흡연인 경우가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직장에서의 흡연하는 장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성인여성 중 현시점 비흡연자의 특성

현시점 비흡연자는 흡연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평생 비흡연자는 흡연무경험자와 경험자가 혼합된 집단이라, 다소 이질적인 집단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금연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시점 비흡연자는 여자 70.1%(4,045명)로 남자 29.9%(1,667명)보다 많다. 여성의 현시점

표 4. 성인 여성 비흡연자의 인구사회적배경

(단위: 명)

		여 자			남 자			
		응답자 전체	평생 비흡연자	OR	응답자 전체	평생 비흡연자	OR	
연령	19~29	753	684	1.00	583	198	1.00	
	30~39	930	874	1.01	812	148	0.60**	
	40~49	1,006	938	1.05	872	137	0.52***	
	50~59	650	596	1.21	579	94	0.56*	
	60세 이상	953	837	1.23	664	119	0.56*	
결혼상태	결혼 외*	1,508	1,296	1.00	973	263	1.00	
	결혼	2,781	2,630	2.20***	2,534	430	0.59***	
개인 환경	교육수준	초등학교 미만	554	464	1.00	129	20	1.00
		초등학교	660	614	2.04**	397	54	1.27
		중등학교	476	429	1.04	376	74	1.53
		고등학교	1,594	1,464	1.34	1,449	273	1.22
		대학 이상	935	899	2.36*	1,094	262	1.56
직업	무	2,233	2,035	1.00	817	211	1.00	
	유	2,058	1,893	0.96	2,692	485	1.54***	
월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61	1,000	1.00	783	134	1.00	
	101~200만원	1,221	1,113	1.67**	1,091	215	1.19	
	200~300만원	979	913	1.75**	833	176	1.13	
	301만원 이상	889	862	2.99***	758	166	1.18	
주관적 건강인식	매우 좋음/ 좋음	1,542	1,441	1.00	1,605	380	1.00	
	보통	1,647	1,516	0.90	1,297	222	0.84	
	나쁨/매우 나쁨	1,102	971	0.78	607	94	0.75	
가정 환경	가족중 흡연자	없음	2,839	2,722	1.00	2,082	602	1.00
		있음	1,453	1,207	0.33**	1,428	94	0.13***
	가정 금연규칙	절대금연	2,892	2,768	1.00	2,144	599	1.00
	일부흡연	883	776	0.33**	824	57	0.58*	
	모두흡연	517	385	0.14***	542	40	0.63	
사회 환경	직장 공공장소 흡연	절대금연	707	669	1.00	686	163	1.00
		일부흡연	592	531	0.52**	950	170	0.91
		모두흡연	377	332	0.23**	562	83	0.97
	직장 작업장 흡연	절대금연	1,006	940	1.00	935	228	1.00
일부흡연		319	281	0.86	714	113	0.71*	
모두흡연		356	315	2.04	554	76	0.56*	
정책 환경	금연캠페인 인지	예	4,022	3,686	1.00	3,336	653	1.00
		아니오	269	242	1.03	174	43	1.22

주: 1) *** p<0.01, ** p<0.05, * p<0.1

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총응답자는 여자 4,592명, 남자 3,510명임. 각 문항별로 미상, 무응답자 제외함. 평생 비흡연자(현재비흡연자와 평생 5갑 미만의 흡연경험자를 포함).

자료: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제3기(2005)심층분석: 건강면접 및 보건인식 부분 표 5, 6 재구성.

비흡연자의 특성과 관련요인은 평생비흡연자의 경향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평생비흡연자 현시점비흡연자의 수적인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인구사회적 변수로서 결혼상태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현시점비흡연인 경우가 3배 이상 높았다. 사회계층변수에서 소득은 주요요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현시점비흡연일 확률이

2배정도 높아진다. 가정금연환경도 중요한 변수인데, 가족 중 흡연자가 없을 경우, 집에서 절대 금연인 경우 현시점비흡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금연환경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평생비흡연자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여부와 가정에서의 흡연허용여부가 더 강하게 현시점비흡연에 영향을 미쳐 여성에게도 역시 가정 금연환경

표 5. 성인 여성 현시점 비흡연자의 인구사회적배경

(단위: 명)

			여자			남자		
			총 응답자	현시점 비흡연자	OR	총 응답자	현시점 비흡연자	OR
인구 사회	연령	19~29	753	710	1.00	583	253	1.00
		30~39	930	887	0.68	812	324	1.16
		40~49	1,006	952	0.79	872	376	1.51*
		50~59	650	607	0.86	579	294	3.11***
		60세 이상	953	889	1.39	664	420	4.55***
	결혼상태	결혼 외*	1,508	1,359	1.00	973	405	1.00
		결혼	2,781	2,683	2.92***	2,534	1,259	0.65**
	교육수준	초등학교 미만	554	501	1.00	129	77	1.00
		초등학교	660	627	1.63	397	200	0.65
		중등학교	476	443	0.87	376	199	0.81
		고등학교	1,594	1,497	1.02	1,449	613	0.72
		대학 이상	935	913	2.24	1,094	556	0.94
	직업	무	2,233	2,116	1.00	817	444	1.00
		유	2,058	1,928	1.34	2,692	1,222	1.41*
	월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61	1,052	1.00	783	386	1.00
		101~200만원	1,221	1,149	2.12**	1,091	468	1.02
		200~300만원	979	933	1.74*	833	395	0.95
		301만원 이상	889	869	2.68**	758	401	1.08
	주관적 건강인식	매우 좋음/좋음	1,542	1,470	1.00	1,605	809	1.00
		보통	1,647	1,563	0.95	1,297	567	0.85
나쁨/매우 나쁨		1,102	1,011	0.64	607	291	0.79	

〈표 5〉 계속

			여자			남자		
			총 응답자	현시점 비흡연자	OR	총 응답자	현시점 비흡연자	OR
가족 환경	가족중 흡연자	없음	2,839	2,802	1.00	2,082	1,511	1.00
		있음	1,453	1,243	0.15**	1,428	156	0.11***
	가정 금연규칙	절대금연	2,892	2,849	1.00	2,144	1,521	1.00
일부흡연		883	795	0.27	824	108	0.18***	
모두흡연		517	401	0.11**	542	38	0.09***	
사회 환경	직장 공공장소 흡연	절대금연	1,006	954	1.00	686	379	1.00
		일부흡연	319	286	0.76	950	412	0.78
		모두흡연	356	323	1.02	562	213	0.78
	직장 작업장 흡연	절대금연	935	515	1.00	935	515	1.00
		일부흡연	714	288	0.66**	714	288	0.66**
		모두흡연	554	201	0.52**	554	201	0.52**
정책 환경	금연캠페인 인지	예	4,022	3,790	1.00	3,336	1,579	1.00
		아니오	269	254	1.47	174	88	0.97

주: 1) *** p<0.01, ** p<0.05, * p<0.1
 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총응답자는 여자 4,592명, 남자 3,510명임. 각 문항별로 미상, 무응답자 제외함.
 자료: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제3기(2005)심층분석: 건강면접 및 보건인식 부분 표 7, 8 재구성.

이 비흡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4. 젊은 성인 여성 흡연자의 특성

성인여성 중 40세 이상에서는 흡연율이 감소하나, 40세 미만에서는 흡연율의 유지 또는 증가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흡연율의 유지 증가 경향을 보이는 젊은 여성 흡연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젊은 여성 흡연경험자의 특성

19~40세 성인여성의 흡연경험자 들은 개인화

경적변수에서는 젊은여성(연령), 사별·별거·이혼(결혼상태), 낮은 학력 수준(교육수준), 육체노동, 무직, 학생, 주부(직업)군에서 흡연경험자가 많았다. 건강행태(음주, 신체활동)는 흡연경험과 관련이 없었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자군에서 흡연경험자가 많았다.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았고, 금연홍보캠페인 접촉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음주경험과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19~39세 여성의 평생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표 6. 젊은 성인 여성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Odds Ratio	
			여자	남자
개인환경	연령	35~39세	1.00	1.00
		19~24세	2.90**	0.42***
		25~29세	3.46***	0.99
		30~34세	1.54	0.84
	결혼상태	유배우	1.00	1.00
		미혼	1.15	0.46***
		사별·별거·이혼	4.06***	1.17
	교육수준	대졸이상	1.00	1.00
		고졸미만	2.26*	1.08
		고졸	2.32***	2.62***
	직업	비육체노동	1.00	1.00
		무직	2.82**	0.95
		육체노동	4.74***	0.91
		학생·주부 등	2.88***	0.7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1.00	1.00
		100만원 미만	1.97*	1.08
		100~200만원 미만	1.21	1.18
		200~300만원 미만	0.91	1.1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음	1.00	1.00
		보통	0.99	1.06
나쁨/매우 나쁨		1.18	1.31	
주관적 체격인식	보통	1.00	1.00	
	마름	1.60	1.30	
	비만	1.37	1.04	
우울증	아니오	1.00	1.00	
	예	1.60*	0.89	
자살생각	아니오	1.00	1.00	
	예	1.70**	1.37	
음주	음주안함	1.00	1.00	
	음주함	1.33	5.14***	
격렬한 신체활동	지난주에 안했음	1.00	1.00	
	지난주에 했음	1.14	1.25	
가정환경	가정 내 금연규칙	가정 내 금연	1.00	1.00
		가정 내 흡연 가능	3.96***	4.14***
정책환경	금연캠페인 경험	있음	1.00	1.00
		없음	0.69	0.52*

주: 1) *** p<0.01, ** p<0.05, * p<0.1

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19~39세 사이의 성인여성 1,683명, 남성 1,395명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서미경 외, 여성흡연 및 음주의 원인과 정책대안, 표 3-69 재인용.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우울증,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건강행태로서 음주, 가정환경으로서 가정내 금연 규칙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2) 젊은 여성 현재흡연자의 특성

19~40세 성인여성 중 현재흡연을 하는 여성은 개인환경적 변수에서는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 교육수준(낮은 학력수준), 직업(육체노동, 무직, 학생, 주부)이 현재흡연에 관련이 있는 변수였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현재흡연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다.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았고, 금연홍보캠페인 접촉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분류 변수 중 가정에서의 간접흡연경험, 결혼상태, 직업, 교육수준의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연령(젊은연령), 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체격인식, 음주경험과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19~39세 여성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생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하면, 연령의 효과가 없어진 대신,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인 집단, OR=6.32) 및 교육수준(고졸미만, OR=3.01)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성인 여성의 현재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 내 금연 규칙이 없는 경우(OR=8.44), 사별·별거·이혼인 경우, 고

졸미만인 경우 등의 순이었다.

5. 맺는말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흡연율은 변화가 없지만, 20~29세 여성의 흡연율은 3.8%(1992년), 4.6%(2001년), 6.1%(2005년)로 증가하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증가추세를 보여 향후 여성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우기 20대 여성대상 연구논문에서 조사된 흡연율인 14.0~21.9%(1990~2005년)를 감안하면, 여성흡연율은 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의 예방 및 금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여성흡연자의 특성의 파악은 중요한데, 여성흡연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사별·별거·이혼'자가 흡연율이 높고, 직업에서도 '무직, 또는 육체노동자'의 흡연율이 높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건강변수, 건강생활습관변수는 전혀 흡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살생각경험'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접근은 직접적인 건강중심의 금연정책 보다는 금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구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며, 소외계층 중심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문

표 7. 젊은여성 현재흡연자의 특성

		변수	Odds Ratio	
			여자	남자
개인환경	연령	35~39세	1.00	1.00
		19~24세	2.07	1.07
		25~29세	1.95	1.85***
		30~34세	1.42	1.18
	결혼상태	유배우	1.00	1.00
		미혼	2.10	0.60***
		사별·별거·이혼	6.32***	4.07*
	교육수준	대졸 이상	1.00	1.00
		고졸 미만	2.96**	1.81
		고졸	3.01***	2.07***
	직업	비육체노동	1.00	1.00
		무직	2.81**	1.17
		육체노동	4.60***	1.05
		학생·주부 등	2.14	0.7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1.00	1.00
		100만원 미만	1.57	0.82
		100~200만원 미만	1.18	0.86
		200~300만원 미만	0.77	0.9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좋음	1.00	1.00
		보통	1.16	1.46**
나쁨/매우 나쁨		1.97*	1.48	
주관적 체격인식	보통	1.00	1.00	
	마름	1.91	0.87	
	비만	1.33	0.7**	
우울증	아니오	1.00	1.00	
	예	1.54	1.11	
자살생각	아니오	1.00	1.00	
	예	2.06**	1.17	
위험	음주안함	1.00	1.00	
	음주함	1.41	3.91***	
격렬한 신체활동	지난주에 안했음	1.00	1.00	
	지난주에 했음	0.72	1.04	
가정환경	가정내 금연규칙	가정내 금연	1.00	1.00
		가정내 흡연 가능	8.44***	9.14***
정책환경	금연캠페인 경험	있음	1.00	1.00
		없음	0.43	0.67

주: 1) *** p<0.01, ** p<0.05, * p<0.1

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19~39세 사이의 성인여성 1,683명, 남성 1,395명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서미경 외, 여성흡연 및 음주의 원인과 정책대안, 표 3-70 재인용.